## 내 했이 바뀌는 전남 중성설시대



4월 6일 화요일

## 보도자료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최 만 수

2

286-6480

## 오늘 돌봄간식은 뭐예요? 초등돌봄 과일간식 4월부터 공급!

- 도내 419개 초등학교, 14천여명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 지원 -

전남도는 419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14천여명을 대상으로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년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과일간식 시범사업은 사과, 수박, 참외 등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국산 과일을 공급하여 소비 확대는 물론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150g정도의 과일을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로 매주 1~3회 공급하며 신안군 등 섬지역에는 원물 공급도 가능하다.

올해 과일간식 공급업체는 농식품부의 엄격한 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성 삼계농협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지역에서 생산한 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공급 하게 된다.

전남도 박철승 식량원예과장은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선하고 맛 있는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14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